

# 누리과정 예산 국가 해결 촉구

## 도내 유·초·중·고 학부모 “대통령 공약 무상보육 책임져야”

도내 유·초·중·고 학부모들이 한데 모여 정부가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파행이 심각하고 이 여파는 학교교육의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구실이 아직까지도 모호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이 아픈가만 하다”며 “급기야 전북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과정 중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책이 그 본래의 가치를 갖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무상보육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버린 지금의 현실 속에서 폭력 사태는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선후를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대결로 분리해서도 안 되는 보편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무상보육 복지인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무상보육-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 지역대학육성사업단  
전북문화관광재단과  
문화관광 지원 협약 체결  
유학생 지역 문화 탐방 지원

전북대학교 총장 이남호) 지역선도 대학육성사업단(위원장 윤명숙)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병천)이 전북지역 유학생들에게 우리 문화 알리기 위해 양 기관은 14일 전북대에서 상호 인력교류 및 전북 지역 문화관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지역 유학생들에게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탐방과 다채로운 문화 활동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내에서 이뤄지는 상설공연과 문화행사, 지역 내 명승지 견학 등을 통해 유학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전북 알리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북대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전북지역 유학생 유치 증진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윤명숙 사업추진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우리 지역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꼭 한 번 찾아오는 전북지역 문화모델을 만들고 미래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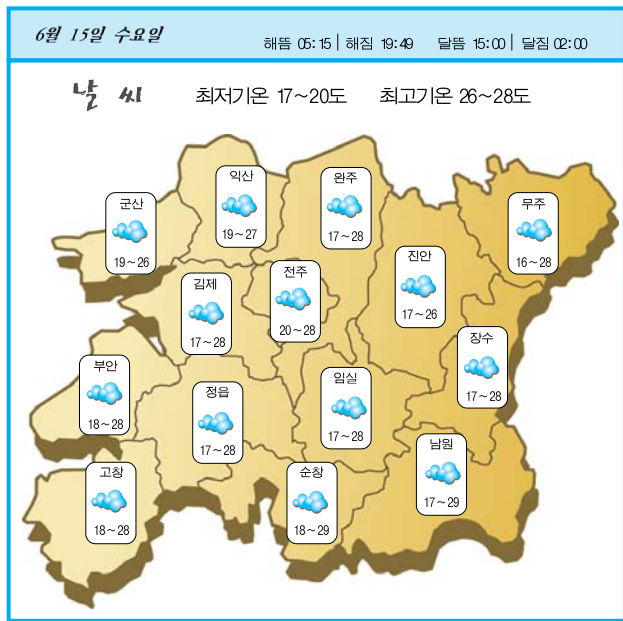
/고민형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교통정보센터 등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운철)가 14일 전주교통정보센터와 전주천 정비사업, 견훤로 대체 도로(중로 1-88호선 개설)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위원들은 급입동에 위치한 전주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교통흐름관제실, 교통안전체험관, 전신실 등을 관계자들과 둘러보고 교통신호등 시설물 및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전주 동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견훤로 대체 도로 공사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전주천(동사학동 안적교~서산동 삼천합류점 구간) 고랑의 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하천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영재기자



## 도교육청, 학생·학부모 등 평화통일교육 실시

### ‘남북의 다름과 같음·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주제로

전북도교육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과 학부모, 도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오랫동안 남북문제를 고민해 온 정창현 현대사 연구소장이 ‘남북의 다름과 같음,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한다.

정 소장은 강의에서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는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정 소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평화통일교육의 한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평화통일교육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전환하고, 교육 내용도 체제·이념 중심에서 생활문화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에서 통일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평화통일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교육청이 준비한 이번 행사는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도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 27개 과목 185명 선발

전북도교육청이 공립 중등교사 27개 과목 185명을 선발하는 계획을 담은 201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사전 예고했다.

14일 도교육청은 국어과목 18명, 영어 18명, 수학 18명, 체육 15명, 보건 15명 등 총 27개 과목 185명의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10월 공고하고, 11월 원서 접수를 거쳐 12월 제차 시험을 볼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내용을 보면 전체 선발인원은 27개 과목에 185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선발인원에 장애인과 도서벽지 선발대상이 포함돼 있으며 세부적 내용은 10월 하순경 시행계획 공고 때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변동 등으로 실제 선발규모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기자



맛있는 포도 수확 14일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동지포도농장에서 농장주 부부인 이중배, 고순덕씨가 거봉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수돗물 병입수 자동화 설비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현덕)가 14일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시 수돗물 병입수 생산 공급을 위한 자동화 설비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수돗물 병입수 생산 공급 자동화 설비는 지난 3월 전주 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억 5천만 원을 들여 제작·

설치한 시설로 생산규모는 8천병/일(350ml), 연간 70만병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설비 가동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최종 시제품에 대한 시음을 통해 제품 확인에 나서는 등 세심한 현장점검 활동을 이어갔다.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은 “현장점검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수돗물 병입수 자동화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Korea Be Inspired**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 ‘휴양하기 좋은 섬 30곳’ 선정  
해양수산부 ‘가고싶은 소규모 해수욕장’ 선정  
CNN ‘한국의 아름다운 섬’ 선정

**DreamHub GUNSAN**

# 관광은 시작은 여기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하여 선유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

## 7월 2일, 선유도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군산시** • 관광문의 (063)454-3337 /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

●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기간 : **2016.7.2~8.15**